

제목 : 2018. 4. 30.까지의 폭스바겐·아우디 EA189 4기통 디젤엔진장착 차량 배출가스 조작관련 제반 소송들의 진행상황

안녕하십니까. 2018. 4. 30.까지의 폭스바겐·아우디 EA189 4기통 디젤엔진장착 차량 배출가스 조작관련 제반 소송들, 요소수분사 조작 담합소송, 6기통 디젤엔진조작소송의 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 1. 2016. 12. 7. 공정거래위의 표시·광고법위반 판정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12. 7. 폭스바겐·아우디가 그 동안 EA189엔진이 클린디젤이라는등 광고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로써 민사소송에서 표시광고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조사기록을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에 의결서와 광고 및 표시사례를 송부해 주었습니다.

### 2.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건 진행상황

(A) 중앙지법 민사22부, 16부, 31부 등에서 올해 2월 중순 새로운 판사님들이 부임한 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민사1심 판결은 올해 가을내지 연말경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 민사합의22부에서 6차례(2017. 2.24., 2017. 6.13., 2017. 7.11., 2017. 9. 4., 2017. 9. 22., 2017.11.24.)재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제6차변론기일에서 저희는 여러 독일법원들이 선고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구입 고객들의 승소판결을 제출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실시한 교통환경연구소 박준홍연구관의 증인신문조서등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그 동안의 각국에서의 진행결과를 정리한 도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내린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본사와의 Distributor계약서와 한국내 공식대리점과의 Dealer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문서송부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결정한 의결서 및 실제 실시된 광고 및 표시사례를 재판부로 보내 왔고, 이는 유리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희는 아래 제7항과 같이 입수한 형사재판기록중 유리한 부분을 추가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새로 부임한 재판부가 자동차전문가를 전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C) 민사16부에서는 2018. 4. 23. 제2차 변론기일이 열렸고, 재판부가 각 원고별 여태까지 주행거리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D) 민사31부에서는 2018. 4. 27. 제5차 변론기일이 열렸고, 재판부가 리스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여태까지 납부한 리스로 금액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3. 2017. 1. 13. 환경부의 티구안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 리콜 방안승인에 대한 처분취소행정소송 진행상황 및 환경부의 2017.8.30. 골프등 9개 차종 리콜방안 승인에 대한 처분취소소송 추가제기

(A) 환경부가 폭스바겐이 제시한 티구안 차량 엔진제어 컴퓨터인 ECU의 Software만 Upgrade하는 리콜 방안이 NOx를 20-33% 밖에 줄이지 못하는 방안(미국에서는 80-90% 줄이는 방안을 승인 한 것과 대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였고, 또 한 향후 빈번해질 고장(DPF, EGR, Fuel Injector 고장 등)발생에 대한 내구성 검증과 보증기간 연장 없이(미국에서 보증기간 4년연장한 것과 극명한 대비) 리콜방안을 졸속 승인한 것이므로, 2017. 1. 13. 서울행정법원에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6차례 변론기일(2017. 6. 16., 2017. 7. 21., 2017. 9. 8., 2017.11.17., 2018. 1. 3., 2018. 2. 7.)이 진행되었습니다. 2017. 9. 8. 제3차변론기일에서는 교통환경연구소 박준홍연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2017. 11. 17. 제 4차 변론기일에는 환경부 흥동과공장과 교통환경연구소 김정수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2018. 1. 3. 제5차변론기일에서는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 실시되었습니다. 제6차변론기일은 2018. 2. 7.에 열려 PPT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최후 구두변론을 하고 재판이 마무리 되었고, 2018. 4. 13.에 제1심 각하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차량소유자들에게 리콜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없고, 차량소유자가 리콜을 안받았을 때 아무런 제재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차량 소유주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리콜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이라고 부름)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로서 리콜을 받지 않을 권리가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리콜을 받으면 손해가 없어지게 된다는 폭스바겐·아우디의 주장은 차량소유자가 리콜을 받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성립되지 않아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환경부가 승인한 리콜방안에 문제가 많음이 밝혀졌고, 환경부의 허술한 검증에 대한 증거도 많이 확보되어 민사소송에서 리콜방안이 문제가 많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들 증거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유리한 행정법원 각하판결이지만, 일단 이번 행정소송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8. 4. 27.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B) 환경부가 2017.8.30. 골프드 9개차종에 대한 리콜방안을 승인한 것을 취소하라는 추가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2017.10.18. 제기 하였고, 2018. 4. 24. 제1차 변론기일이 열렸고, 제2차 변론기일은 2018. 6. 14. 열릴 예정입니다.

#### 4. 미국 민사소송 진행상황

브라이어 판사가 미국고객들에게 현재 2리터 소형디젤엔진 배상안과 3리터 디젤엔진 배상안이 최종승인되어 미국고객들에게 차량대금환불과 추가 현금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미국 투자자들이 제기한 증권거래법 위반 및 손해배상 소송을 현재 다루고 있으며, 한국고객에 대한 배상문제는 그 이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어서 현재 계속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향후 미국 테네시주 폭스바겐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파사트를 제외한 독일에서 생산된 차량들에 대하여 한국고객들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Class Certification(집단인정여부) 문제를 놓고 VW·Audi측과 격돌하게 됩니다.

#### 5. 독일, 영국, 스위스 등에서의 피해자 소송 제기 및 판결현황

(A)독일에서는 2017. 1. 초 1만 명의 피해자들이 모여 My-Right라는 소송협의체를 구성하고 VW·Audi 본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하였고, 현재 가입자가 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2개 독일 로펌에서 2만5천여명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프라이부르그, 뮌스터지방법원등 여러 독일지방법원은 폭스바겐에게 차량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동안 많은 독일의 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고, 최근에는 원고승소 판결의 경향이 좀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판결을 유리한 자료로 한국 민사소송에서 제출했고, 추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7. 11. 8. 폭스바겐 본사를 관할하는 쉘레 고등법원(Celle Oberlandesgericht)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조작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본 소수 주주들의 신청을 받아 들여 배출가스 조작의 실체와 본사 이사회 멤버들의 조작인지 시점을 파헤칠 특별검사인(Sonderpruefer, Special Auditor)으로 켈프스(Roelfs)회계법인의 루디거 라인케(Ruediger Reinke)를 임명했습니다.

(B)한편, 영국에서는 로펌 들이 연합하여 6만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말 본격적으로 집단 소송이 개시되었습니다. 호주에서도 2018년 3월초 부터 집단소송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와 동유럽3개국 피해고객들이 독일에서 VW·Audi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에서는 이미 소비자단체들이 단체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6. 서울중앙지법에서의 형사재판진행상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관련 검찰이 기소한 박동훈사장에 대한 제1차공판이 2017. 7. 19. 진행됐고, 검찰이 약식기소했던 트레버 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를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2018. 3. 29. 트레버 힐이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트레버 힐 후임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사장은 독일로 출국한 뒤 2017. 7. 19. 재판에 불출석하여 비판여론의 화살이 집중되었습니다. 요하네스 타머와 트레버 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사재판이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어 일단 마무리지었으며, 현재 요하네스 타머가 향후 재판에 출석할 것인지에 따라 판결선고시기가 유동적입니다. 저희들은 이 형사재판에서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과 증언들이 수록된 재판기록을 복사했으며 이들문서를 민사재판부인 민사22부등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 7. 한국 및 미국, 독일에서의 검찰수사

(A) 2017. 1. 11. 미국연방검찰은 폭스바겐 본사로부터 조작에 관한 유죄시인 받음, 8명의 고위 임원을 기소했고, 이중 미국에서 체포된 2명(James Liang과 Oliver Schmidt)은 유죄시인하고, 중형을 선고 받았음

미연방검찰은 5조원상당의 형사벌금등을 합의하면서, 폭스바겐·아우디 독일 본사로부터 디젤게이트 조작이 미연방 청정대기법위반, 빈터콘전회장등, 공무집행방해죄, 통신에 의한 소비자사기죄 위반으로 유죄 시인(Plead Guilty)을 받아냈고 독일 본사 고위임원 8명을 기소했고, 빈터콘 독일본사 전회장등 본사 이사회 멤버로 까지 수사를 끝까지 지속 하고있음. 최근 2017. 12.6. 디트로이트연방법원의 Sean Cox판사는 Olive Schmidt에게 징역7년에 벌금40만달러를 선고 하였습니다.

#### (B) 독일검찰의 수사 진행상황

독일 브라운 슈바이크검찰청은 2017. 2. 초 빈터콘 폭스바겐 본사 전 회장에 대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빈터콘 전 회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독일 검찰이 폭스바겐 이사회가 2015. 8. 이전에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독일뮌헨검찰청은 아우디본사와 자체 내부조사를 실시했던 글로벌로펌 Jones Day의 뮌헨 사무소를 압수 수색하고, 슈투트가르트검찰청은 포르쉐 본사도압수 수색하였습니다. 독일검찰도 빈터콘전회장, 꿰치회장,

뮐러회장, 슈타들러사장등 고위층을 겨냥하여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2017년 7월3일 뮐헨검찰청이 아우디 디젤기술담당임원인 지오바니파미오를 첫 구속사례로 구속시켰고, 9월28일에는 기술개발본부장으로 기술직 최고위 임원인 볼프강 하츠를 두번째로 구속하였습니다. 브라운슈바이크검찰청은 이날 50여명의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변호인들로 하여금 수사결과를 열람시키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수사가 막바지에 다달았음을 밝혔습니다. 2018. 4. 18. 독일 슈투트가르트 검찰청과 뮐헨검찰청이 190명을 동원해 포르쉐본사와 아우디 본사를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압수 수색하고 포르쉐 파워트레인개발본부장인 외르그 케르너(Joerg Kerner)를 체포 하였습니다. 올해중으로 이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 **(C) 서울중앙지검에 독일본사임원들 재고소**

정상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조작은 2006년부터 독일 본사 직원들에 의해 이뤄졌는데, 한국검찰은 독일 에 있는 이들을 한국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지 못해 수사종결하면서 사기죄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고소제기한 것을 2017. 1. 12.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위 (A)(B)항과 같이 미국검찰이 독일 본사의 유죄시인을 받아내고 임원 8명을 기소하면서 미연방법원에 제출한 다양한 문서와 증거를 미국에서 확보하고, 나아가 독일검찰이 위(B)의 수사결과 기소를 하면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다시 한국검찰에 제출하며 재고소하여 조작주역인 독일본사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 **8.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벤츠, BMW 5개사 요소수 담합**

2017. 7. 27. 독일 슈퍼젤지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벤츠, BMW 5개사들이 디젤엔진 NOx제거에 쓰이는 요소수(AddBlue)탱크 크기를 8L로 하기로 담합하고 요소수분사량을 조작하였다고 보도하였고, EU경쟁위원회는 이들 담합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요소수 조작은 이 사건 EA189엔진 EGR조작과는 관계가 없지만, 독일자동차회사들의 또 다른 조작사실은 본건 소송에도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고, 요소수SCR장치가 장착된 Q5차량보유 고객에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EU반독점당국은 지난 10월16일부터 5일간 BMW본사를 급습조사 했으며, 10월23일부터 벤츠와 폭스바겐/아우디 본사를 방문조사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지난 여름 제기되었는데, 최근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2017. 8. 8. 한국에서 이들 5개사를 상대로 요소수담합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9.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6기통 및 8기통 조작 적발**

2018. 4. 3. 환경부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6기통 및 8기통 디젤차량에 시험실구장치인 다이노미터 위에서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여 인증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온도상승제어 임의설정과 자동변속기 기어를 신속히 높은 고단으로 변속되게 하는 임의설정(조작)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6년 5월 폭스바겐과 아우디 6기통 디젤엔진 조작에 대해 다시 조사하라고 제출한 저의 청원을 뒤늦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2017. 8. 18. 한국에서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상대로 6기통 디젤엔진 조작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중선 드림